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을유년을 맞이하며 신년인사
4. 국내순교지 (헤미 읍성)
6. 젊은이들의 황금어장 군선교를 향해 뛴다
8. 차렷,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나 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74호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글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 진 형 목사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을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춘천기독교연합회장으로 오승룡 목사님께서 무척 많이 수고 하셨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흩어져 있던 춘천의 각 기독교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면서 선교대회를 축제 한마당으로 만드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어떡하다 보니까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각 기관장님 및 단체장님들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 기독교인의 자부심 중 하나는 춘천이 최초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한 곳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1972년에 시작 됐으니까 벌써 33년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33년만에 위대한 구령사업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춘천 성시화는 33년이 됐는데도 아직 성시화된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복음화가 이뤄지고 최소한 시민의 과반 이상이 성도가 돼야 성시화의 모습을 드러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천시 같은 곳은 40% 복음화가 이뤄졌다는데 춘천시는 아직 20%도 채 못되는 숫자가 믿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성령충만해 전도에 주력하다 보면 큰 부흥과 복음화가 가능하고 시 전체를 성화시키는 성시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성시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세계 여러 도시들의 성시화 사례를 엮은 비디오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수순으로 성시화가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한 임재 역사가 있고 이어서 복음화와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고, 결국 타락했던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수순이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성시화를 위한 많은 기도가 쌓여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복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애쓴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성시화 운동을 일으킨 춘천이 한국에서 가장먼저 실제 성시화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춘천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시화를 위한 발걸음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복주심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달의 말씀

이사야 43장 18 ·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 동남아시아의 지진 해일 피해

속속 알려지는 무서운 재난의 피해가 이젠 수만명을 넘어가고 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새로 선출된 모든 기독교연합단체들의 새 일꾼들

기독교연합회, 교역자연합회, 장로연합회 등등 모든 기독교연합단체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일꾼으로 단장하였다.
새해에는 놀라운 성시화운동이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 정치와 경제의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날로 피폐해지는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타개할 상생정치와 경제가 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정치 · 경제인들이 되어 복있는 나라로 이 땅과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소서.

·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수험생들이 소원하던 학교 학과에 들어가서 모두가 이 나라와 도시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하며 성시화를 이룰 귀한 재목들이 되게 하소서.



새해 福 말이 발으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함께하시길...."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이 되는 멋진 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옛적 일들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내시길 소망하며, 희망차고 새롭게 도약하는 춘천을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런 한국, 소망이 넘치는 춘천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려운 나라경제로 모두가 우울해 하고 있지만 올 한해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겠기에 국민의 지혜와 밝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바른 정치', '생활정치'로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허 천 드림.

존경하옵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교통 · 관광 · 문화 · 농업 · 복지 ·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어느 해 보다 자랑스럽고 내실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1천 3백여명의 공직자가 힘을 모아 우리 춘천을 레저와 휴양, 그리고 인력양성 등 수도권 경제 활동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 고속 접근망이 완전히 개통되고, 2010세계레저총회를 유치하여, 2010년을 우리 춘천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그랜드 오픈의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21세기 지식문화 관광레저 중심도시 조성을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춘천시민 여러분!
이 많은일들은 시민 모두의 동참없이는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을유년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춘천시장 류종수 드림.

부끄럽게 하소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스승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던 사도 베드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이 그의 영혼을 일깨우는 성령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온통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육현장이 외해나고 국민경제에 그늘이 지고, 사회가 이념과 계층으로 철저히 갈라지고 천박한 상업주의 문화가 청소년들의 정신을 갉아먹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치 · 경제 · 사회 · 종교계의 지도층들은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른 체 제 목소리 내기에만 바쁩니다.
화합의 기둥이어야 할 양심과 이념이 도리어 갈등과 분열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저마다의 신념을 내세워 패거리를 만들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광기(狂氣)의 사회, 정신 나간 시대 속에서, 세해의 기원은 마땅히 어제와 오늘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유치차격(有恥且格)'이라는 공자의 말처럼, 부끄러움을 알아야 삶의 품격이 높아지고 내일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소망이 깃듭니다.
주여, 새해에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소서. 닭의 해-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소서.

춘천지방법원장 이우근 드림.

사랑과 믿음으로 온누리를 가꾸는 춘천시민 여러분!



을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첫 출발점에서 선 설레임과 기대 속에 신년 새아침의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 새롭게 맞이하는 금년 한 해 동안 또 다른 도전과 노력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 가운데 실현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직장,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과 사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자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꾸기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르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우리 춘천시의회 역시 지역의 권익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춘천시의회의장 함종호 드림.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김 춘 배 김 규 현
김 수 영 이 희 영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지어요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 운동으로 입구이지는 『사랑의 집짓기』가 이곳 춘천에도 뿌리내리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05년에도 치고 넘치는 축복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집짓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사장 배계섭

인 물

춘천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2005년도,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유진형 목사님(현,남춘천감리교회 담임목사)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2005년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춘천성시화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춘천의 크리스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성도 개개인들이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춘천이라는 도시를 기독교적 세계로 변화시키겠다는 성시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유: 저도 목사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춘천을 성시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시화를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시화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1972년도에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3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시화와 관련한 열매가 빈약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분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성시화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모두가 쉽게 대답하더라구요. 없다고! 그래서 또 한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시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청사진, 혹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나같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성시화를 많이 부르짖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조: 목사님께서 보실 때 성시화운동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교연합회의 실행기관입니다. 기독교연합회가 머리라면, 성시화운동본부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뒤쳐져서도 안되지만, 너무 앞서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시화운동본부는 훌륭하게 사역을 전개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발전적인 성시화운동의 전개를 위해 자세하게 지금까지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해오던 사역들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향후방향을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역과 행사들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정: 사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창립시부터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이셨던 오승룡목사님께서 기독교연합회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춘천성시화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시화를 위한 상당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각 단체들의 역할이나 기능들도 어느 정도 잘 정리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오목사님께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많은 논의와 합의를 하신 후, 성시화운동본부 총회시에 성시화운동의 향후 비전과 1년 동안의 사역 일정을 제시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 저도 오승룡목사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어요. 오목사님과 전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성시화의 기반을 잘 활용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기독교연합회를 통한 교회의 역량을 한 곳에 결집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연합회의 결집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유: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춘천에도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기관들과 단체들의 힘이 집중되도록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조직과 단체들이 기독교연합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사역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힘이 결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 회장님, 시무하고 계시는 남춘천감리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남춘천교회를 개척하신 것인가요? 남춘천교회의 역사와 목회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 제가 알기로는 남춘천감리교회는 춘천중앙감리교회 다음으로 춘천에서는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옛날 역사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앙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한의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부임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춘천의 외곽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목회방향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함께 기도의 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시절, 공부하기에 바쁠 때도 늘 새벽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독특한 말씀의 힘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누에고치 같은 말씀이 덩어리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는 거에요. 종종 친구와 함께 대전 시내를 한바퀴 돌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풉이 설명하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사역의 기초가 되었어요. 기도와 말씀사역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목회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과 지혜와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가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만, 저는 부활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남춘천교회에 대한 제 비전은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부흥도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성시화도 되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3.1절 연합예배시, 역사 신학자 피영민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피목사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50년주기로 일어난다." 고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더라구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50년 후인, 1958년 조용기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성령운동을 시작하면서 놀랍도록 부흥했고, 수많은 한국교회가 세계 10대교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뒤가, 2010년 전 · 후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영계를 살펴보면, 해뜨기 직전의 칠흑같은 어두움입니다.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이 안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해는 결국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령의 불길이 이 강산을 휘몰아칠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믿습니다.



유진형 목사
1950년 8월 18일생
대전 중, 고등학교 졸업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이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 졸업
단양 가곡교회, 제천 금성교회 담임
1977. 4. 목사안수
육군 군목 복무
춘천 제일교회, 서울 금란교회 부담임
춘천 은광교회, 남춘천교회(현) 담임
가족 : 차 윤삼충과 1남 1녀

조: 성시화를 하자는 것에 별로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성시화를 하는 것이냐?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시화는 영혼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혹자는 문화, 사회변혁운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 지금 언급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성시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음화, 문화, 사회개혁 등 이 모든 것이 성시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러한 순서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시화가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웨슬레의 사역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매우 부패하여, 붕괴라도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의 사역으로 성시화가 이루어져서 술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 되었어요. 피의 혁명이 이루어질 사회를 웨슬레가 구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의 성시화는 우선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들이 중생을 얻고,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화되니까 성화의 역사가 점점 확산되어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사회까지 성화된 역사였습니다. 저는 우선 복음화가 선행되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들도 자연히 다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웨슬레 성시화운동은 춘천성시화운동의 모델운동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시신문에 웨슬레 성시화운동을 연구해서 싣도록 하고, 성시포럼을 통해서 웨슬레 성시화운동의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해 나아가면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것들은 누구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일 시 : 2004 12월 14일
장 소 : 남춘천감리교회
진 행 : 조영춘
글 정리 및 사진 : 정 재 호
김 미 경

국내 순교지 해미읍성(해미순교지)



글 한 남 수 장로(춘천제일장로교 제1남전회 회장)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쪽으로 가다가 보면 서산IC가 나오고 그 다음이 해미IC이다. 해미IC를 나와서 우측으로 보면 5분 거리에 해미읍성(해미진영)이 보인다. 정확히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해미읍성이 있다. 지금의 "해미"의 옛 지명은 "해뫼"라고 한다. 해뫼란 해가 질 드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나라말이다. 서해안에 자주 출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 태종 때 쌓기 시작하여 세종 3년에 완공한 석성인 해미읍성은 본래 동문, 남문, 서문 이외에 옹성이 2개소, 객사(감옥) 2동, 포루 2동, 동헌 1동, 총안 380개소, 수상각 1개소, 신당원 1개소 등 매우 큰 규모였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일부 유실되었던 것을 1974년 원형대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이 성은 높이 4m~5m, 총 연장길이 1,800m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읍성 중에서 가장 잘 보전되어 있고 제일 오래된 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성은 대개 4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도성이요, 둘째 읍성이요, 셋째 산성이요, 넷째 장성이다. 도성은 수도 방어용으로, 읍성은 지방도시 방어용으로, 산성은 외침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으로, 장성은 국경 방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해미읍성은 고창읍성이나 낙안읍성과는 달리 성안이 텅 비워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내포지방 일대의 군사적 요충지의 중요성 때문에 국토수비의 목적으로 축조된 군사 1,400명 내지 1,500여명의 수영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등 3개의 출입문과 2곳의 망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문인 진남루(남문)만 원형대로 복원 되었고, 동원은 소실되고 그 빈터 자리는 칠첵으로만 둘러 쌓여있지만 그 옆자리에 아문과 호서좌랑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정문인 남문(진남루)에 들어서면 호서좌랑까지 가는 길 좌우에 탱자나무가 가지런히 잘 가꾸어져 있다. 옛날에는 성 외곽에 탱자나무가 성내를 방어하는 장애물로 많이 심어져 있었다고 하여 일명 탱자성이라 했다고 한다.

해미읍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 병마절도사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무관인 영장이 현감을 겸하여 지역을 통치하던 곳이었다. 특히 이곳의 지휘관(영장)에게는 사학(천주교를 당시 사학이라고 함)인들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한다. 바로 이 점이 해미읍성(사실은 해미진영)이 군영으로서 군사적으로 특별한 전적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790년~1880년대에 이르는 100여 년 동안 국사범으로 선량한 천주교인들을 대량 처형하는 오명을 남기는 곳으로 유명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도 선조 12년(1578년)에 병사영 군관으로 부임하여 훈련교관으로 10개월 정도 이곳에 근무한 기록이 남아 있다.

천주교는 태동 때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 천주교사를 살펴보면 4단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이다. 해미진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던 시기가 병인박해라고 한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면서 조선에 머물던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하고 많은 천주교인을 학살한 것이 병인양요가 촉발하게 된 배경이었다. 병인박해가 시작된 1866년 부터 3년 동안 이 곳 해미진영에서 처형된 천주교인 수가 조정에 보고된 것만 1,000여명이 넘는다고 하니 실제의 수는 그 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본다(프랑스는 병인양요 때 왕실의 사고인 외규장각에서 약탈하여 간 도서 297권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1790년대에 순교한 박취득(라우렌시오)을 비롯한 순교자들은 1870년대까지 수십 명이 이름을 남겨 놓고 있지만 그 외의 수천 명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숨과 함께 사라져 더욱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병오박해 때 25세 나이로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인 김진후(비오)가 10년 동안 옥고를 치루고 순교한 것도 바로 해미진영안의 감옥이었다고 한다.

조선조에 선교사로 이 땅에 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로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시작된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을 지키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목숨을 버리며 "에수 마리아"를 외치던 1866년부터 1871년까지 7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매장 당한 3,000여명이 순교당한 순교지가 바로 해미읍성(해미진영)이다.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한 자리에 돌, 고문하며 교수형에 처하던 호아나무가 늙은 채로 그 때의 아픔을 머금은 채 서 있는 곳, 박해현장이 바로 해미읍성인 것이다.

전도회나 친목회나 교회에서 국내선교지 순방계획이 있으면 꼭 가보도록 권하고 싶은 곳이다. 춘천지역에서 1일 코스로 가능하며 고속국도로 편도 4시간 정도 소요되며, 3시간 정도면 해미성지를 둘러 볼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고 날씨가 좋으면 1,800m의 성곽에 한번 올라 가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일준공)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웨슬레의 페더레인 성령 세례를 회복하자

(1907년 평양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글 김헌곤 목사(춘천새순교회)

웨슬레가 35세 되던 1738년 5월 24일 런던 시내의 올더스게잇 거리의 한 집회소에서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중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올더스게잇 체험 이전에는 "믿음이란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성으로 헤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1725년 7월 29일 그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 내용에 의하면), 올더스게잇 체험 후 18일 만인 1738년 6월 11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설교에서 웨슬레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런 놀라운 중생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 다시 불안과 불신앙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생활에서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설교에도 여전히 감화력이 없었다."고 하였다.(존 웨슬레 생애 48쪽-송종국)

웨슬레는 이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세례와 능력을 받기 위해(행1:4-5, 눅24:49) 몸부림쳤다. 1738년 여름 3개월 동안 친구와 함께 독일에 모라비안 교단의 본부를 방문하여 신앙의 지도와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1738년 10월 9일에 미국의 영적 거성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노스 햄프톤 대부흥운동사』를 읽으며 큰 도전을 받았으며 더 큰 능력,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웨슬레기념교회 내부



웨슬레기념교회

올더스게잇 체험 후 7개월 뒤인 1738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를 런던 시내의 페터레인(Fetter Lane)에서 가졌는데, 여기에 휫필드, 매형, 동생 찰스를 포함한 7명의 목사와 6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대망회를 가졌고, 이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웨슬레의 1939년 1월 1일(월) 일기는 이날의 감동과 역사를 이렇게 적고 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들은 넘쳐흐르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하고 찬양을 불렀다."이날 이후 웨슬레는 노방전도를 시작하였고, 공동묘지에서 대중집회를 인도하였으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는 등, 강력한 그의 부흥사역이 시작되었다.

우리 기독교인은 웨슬레의 올더스게잇 중생의 체험과 함께 페터레인의 성령세례 체험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웨슬레는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 곧 카리스마타(Charismata-쓰러짐, 거룩한 웃음 등)가 나타난다고 믿었다(나채운박사-장신대 대학원장).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충만을 받아야 마귀와 죄악세상을 이기며, 성령충만을 받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첫번째 은혜인 성령세례를 받고, 두번째 은혜인 성령충만을 유지해야 개인적으로 승리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정영관 박사는 그의 논문 『웨슬레의 영적체험』에서 올더스게잇과 페터레인 두 가지 경험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두 경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복음을 말하는 웨슬레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리버티 신학대학 학장인 엘마타운즈는 『세계 10대 부흥의 역사(The Ten Greatest Revivals Ever)』라는 책에서 페터레인 사건을 웨슬레 부흥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이명직 목사님이 1916년 26세에 아현교회 주임목사요 경성신학교 교수로 부임했는데, 그 후 활천에 쓴 글 가운데 "나는 그 당시 성결을 교리로만 알았지 체험하지 못했다. 성결치 못한 나, 부패한 심령의 나는 걷단장하기만 힘썼다."(활천 1924년 10월)고 고백하였다.

그는 1921년 이성의 유혹의 갈등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 특별기도를 시작한다. "나에게 성결을 주시든지 사명을 거둬 가시든지 하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중 3일째가 지나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신의 충만함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태어난 후에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이명직 기념문집, 103-104)

그 다음날 그는 신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자신의 체험을 말하며 유혹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언한다. 간증을 들은 신학생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와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 신학교 강의가 15일 동안 중단되었다. 어느 날은 사죄를 요청하는 편지가 200여 통이나 발송되기도 하였다. 이후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주일날이면 오전에 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초교파적으로 경성신학교에 모여서 성령대망회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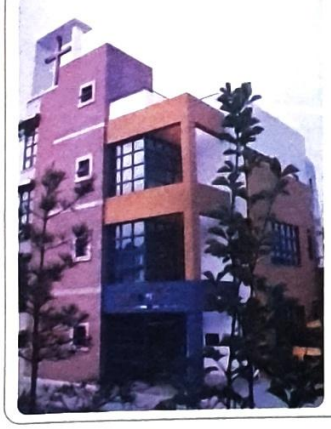
이 부흥이 2007년을 앞두고 춘천 성시화에 꼭 이뤄지기를 소원한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이성봉 목사도 1937년 교단총회에 참석 도중, 철야기도회와 회의 때문에 지쳐, 신학교 기숙사 4층 서쪽 방에서 잠시 쉬려고 눈을 감았는데, 김익두 목사가 나타나서 오른쪽 옆구리에 안수를 받는 체험을 갖는다. 그는 자서전(『말로 못하면 죽음으로!』)에서 고백하기를 "김익두 목사님의 손이 닿자마자 '불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너무 뜨겁고 놀라서 후다닥 침대에 뛰어 올랐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어찌나 흔이 났는지 온몸에 땀이 흐르나 심령은 매우 상쾌하였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교단총회는 그를 순회부흥목사로 임명하였고, 그때부터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다이나믹하게 증거한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모든 부흥운동의 기폭제는 성령세례요, 성령충만이다. 1907년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다.(행2:1-4) 이 부흥은 남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 1903년에 시작하였고, 1907년에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으며, 1909년에 100만 구령운동을 일으켰다.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통한 부흥운동이 밑받침되지 않는 부흥의 프로젝트는 허상이 되고 말 것이다. 김익두, 이명직, 이성봉, 조용기 목사님의 부흥운동도 성령세례와 붑세례가 기초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시대적인 부흥운동은 인간들의 운동(movement)이 아닌 하나님의 운동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기에 더욱 겸손히 늦은 비의 성령을 사모하며(욜 2:23) 기도할 때, 1907년 한국교회의 대부흥이 100주년 되는 2007년에 춘천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햇살어린이집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님들의 신뢰에
흡족한 만족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TEL 033) 254-7631
033) 254-8430
017-373-0011
춘천시 조양동 50-8
(명동내 위치)

PRO-SPECS 명동-프로스펙스



TEL 033) 254-7631
033) 254-8430
017-373-0011
춘천시 조양동 50-8
(명동내 위치)

젊은이들의 황금어장 군선교를 향해 뛴다.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군인선교센터 장용섭 목사편입니다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군생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군에 보낸 다음에야 군선교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다시 군선교의 중요성을 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찍이 군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군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기로 한 부흥사가 있다. 바로 춘천군인선교센터의 장용섭 목사이다.

군종으로 섬기며 군선교에 비전이 싹터

춘천군인선교센터는 1985년 설립되어 1997년부터 5대 사역자로 장목사가 사무하고 있다.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날 때 실무책임을 맡았던 이상표 목사(당시 사무국장)가 그의 전임자이다. 장목사는 1987년에 이곳에서 군생활을 하며 군종으로서 기도온 교회를 섬긴 인연이 있다. 이곳에서 이상표 목사를 만났다. 이상표목사의 열정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군선교에 대한 비전이 싹텄고, 평생 헌신의 각오가 생겼다고나 할까. 현재 춘천군인선교센터는 침례교단 소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목사는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침례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과 연관하여 초교파적인 사역을 원칙으로 활발히 사역해 오고있다.

현재 장목사가 군인선교센터를 운영하며 담당하고있는 주 사역지는 군인교회인 풀무교회, 기드온교회를 비롯하여 독립 건물없이 예배를 드리는 내무반 교회에배까지 담당하고 있다. 장목사는 주일에는 4개 부대를 돌며 모두 6-7회에 걸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왕복 평균 5,000Km의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 목회자가 돌보기에는 목장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사역일 것이다.



장 용 섭 목사
1966년 6월 6일 경북안동 출생
대신대학교 졸업
침례신학대학교목회대학원 졸업(M. Div)
대구동산교회부교역자(90 - 96년)
대구새빛교회부교역자(96 - 97년)
기독교한국침례회군경선교회춘천센타관장(97년 - 현재)
가족 : 처 심새순, 혜경(신동초4), 하람(신동초1)

개인면담을 통한 전도

장목사가 섬기는 군인선교센타의 사역의 열매는 적지 않다. 사역의 열매는 외적으로도 드러난다. 해마다 1500여명의 장병들이 침례식(세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부대에서는 장병들이 훈련소에서 대부분 1인 1종교를 결정하고 자대배치를 받기에 일반부대에서 침례받을 장병들이 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목사는 주로 개인 면담을 통한 전도방법을 사용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부대로 직접 들어가 병사들을 상담한다. 이 시간의 주제는 따로 없다. 장목사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병사들이 쉬며 마음을 열도록 기다린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 면담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장목사는 "입대한 병사들의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배고픔과 강한 통제로 인한 고통을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고민과 가정적인 고민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복음제시보다는 병사들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런 접근법이 오히려 병사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장목사는 부대를 수시로 방문한다. 특히 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시에는 훈련장으로 장병들을 찾아가 직접적으로나 외부와의 섭외를 통해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짧은 행보에 신앙이 있는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 없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더 고마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장목사는 귀띔한다.

군인선교센터 근처에는 102보충대가 위치하고 있다. 102보충대에는 전국에서 매주 천여명이 입대하는 군선교의 요충지이다. 유명? 탈렌트들의 입소로 메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이곳을 대상으로 102보충대 군종목사와 협력하여 제일 먼저 입대하는 장병들을 환영하고 전도 팜플렛을 나눠주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춘천군인선교센타에서는 매년 9월 첫째 주에 의미있는 행사가 치러진다. 홈 컴잉데이(Home Coming Day) 형식을 띤 성전봉헌 기념예배가 그것이다. 1989년 성전완공을 기점으로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부대 내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제대한 병사들과 출신 간부들이 매년 수십명씩 다시 찾아 후배 장병들을 격려하고, 주님께의 재헌신을 다짐하는 모임으로발전할 정도로 규모있는 모임이 되었다.

전문성이 필요한 군선교

군선교에 관한 전망과 미비한 점에 관해 진단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장목사는 아쉬움과 기대를 솔직하게 피력한다. 지금이야말로 군선교에 관한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장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첫째로, 군선교의 전문성이다. 장목사는 타종교에서도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훈련된 전문 사역자를 군선교지에 파송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군선교 사역자들은 군을 잘 알아야하고, 전문성을 위해 평생을 이 사역에 몸담으려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둘째는 제자훈련 사역의 접목이다. 군선교가 단순히 병사들을 전도하여 신앙을 근근히 유지시켜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수동적 선교가 아니라 풍성한 신앙생활의 연장으로서 군선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사들의 성경공부와 함께 매주 수요일에는 간부제자훈련 성경공부가 따로 있다.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쉐퍼드 라이프'같은 우수한 제자훈련교재를 채택하여 강한 제자로 간부들부터 훈련하고 있다. 셋째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의 인식의 전환이다. 군선교, 군인교회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장목사는 제자훈련 시간을 통하여 '자립형 교회'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나누어 주는 선교'를 강조한다. 그래서 군인교회 자체에서 이미 수 년 전부터 방글라데시, 이라크, 중국연변과기대, 북한선교 등으로 선교비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단독으로 2회에 거쳐 선교사를 파송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중국연변에도 교회 개척 및 지원을 하고있다.

장목사와 대화를 나누며 장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장병들의 입장에 서서 군생활을 돕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장목사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역을 만드는 비결로 보인다.

끝으로 장목사는 말한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다고 말하고, 수평이동으로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선교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군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의 황금어장 군선교. 보다 많은 관심과 기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리라 믿으며 축복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린다.(취재 최상도)







새 주인을 찾습니다



춘천 기독교서점
(네넌 인도선교사 파송 예정)
시청 맞은 편
대표 : 유 인 순
☎033) 257-5725
019-319-6837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웃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소개합니다

JLOC



제이락은 2003년 9월 23일 연합집회인 백령문화관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춘천에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교회 중 약 17개 교회와 단체 리더들과 멤버들이 모여 "춘천을 하나 되게 하자!"는 뜻을 품고 결성된 춘천연합찬양선교단체이다.

'Jesus Love On Chuncheon' 의 약자를 따서 JLOC 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을 둔 순수한 자비량선교단체이다(제이락은 한자로 풀이하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의 능력은 인정하고, 그분 뜻 안에 있길 소망하는 제이락의 비전은 먼저 춘천을 찬양으로 열린 도시를 만들고, 성시화를 이루는데 뜻을 같이하는 기독인들을 통하여 하나됨으로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로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한다.

현재 단장으로 씨씨엠이지기획사 대표인 강수인 안수집사는 "연합된 감사의 찬양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 일로 나타나는 증거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전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된 한민족임을, 세계가 주안에서 한민족임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 연습실(후평동 67-36번지 지층40평기량)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매달 찬양집회를 열고 있다. 2005년부터는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찬양집회를 열게 된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군선교와 개 교회 및 기독단체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찬양으로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또한 제이락은 얼마 전 제1집 '회복' 앨범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13일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앨범발매 감사찬양집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찬양에 큰 비전이 있는 팀과 개인을 선별하여 계속적으로 앨범을 제작하고, 제이락 아카데미를 통해 기독인들에게 프로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찬양선교활동에 더욱 열심을 낼 계획이다. 따라서 단원 모두가 전문인 선교사로 성장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제이락을 통해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하나되어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날까지 성령을 통한 주님의 역사가 이땅에 일어나길 기대한다. (자료제공 제이락/ 글정리 편집부)

[춘천연합찬양선교단 문의 : 033)251-8565, 244-8566 http://jloc.co.kr]

영혼의 양식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엡 3:14-21



글 유동선 목사 (중앙성결교회)

건강한 사람을 정의할 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말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병중 제일 무서운 병은 암과 같이 자신이 병든 줄 모르는 병입니다. 또한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병들게 하는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이것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한 심령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영혼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 한둘이 있으면 온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을 중요하게 이깁니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비결이 무엇입니까?

1. 첫째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평안히 계실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 그리스도께서 평안히 거하십니다. 깨끗한 영혼의 방을 준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됩니다.

2.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입체적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랑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병든 심령이 많으면 교회도 함께 병듭니다.

이제 2005년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뜨거워지고 새롭게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명가
귀빈스튜디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일·돌·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가족사진 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알선 (수학·졸업 여행)
• 배낭여행·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카페 크리스챤
T:244-9117 시청 옆
http://cafechristian.cyworld.com

춘천 닭갈비
Tel. 244-0008
016-668-0179
춘천닭갈비.net
dgbmall.com

CBS 춘천방송
FM 93.7 MHz TV 스카이라이프 162번
강원 케이블 73번
인터넷 방송 http://www.cbs.co.kr

차렷!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그의 모든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주님께 아뢰어 이르기를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시18:1-2)라고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과 우리 혼으로 아는 바라"(수23:14)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증거했다. 만약 이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같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힘으로 신뢰하지 않았기에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가 몇 장 노래 부르는 종교소꿉놀이는 했어도 다윗과 같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었다.
또한 모임에 참여했지만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이었기에, 정쟁과 파당을 짓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었기에 성경은 이루어진다는 증거조차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는가?
나는이 연말과 새해에 이 선한 말씀을 맛보기를 권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계22:13)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하기 때문이니라."(히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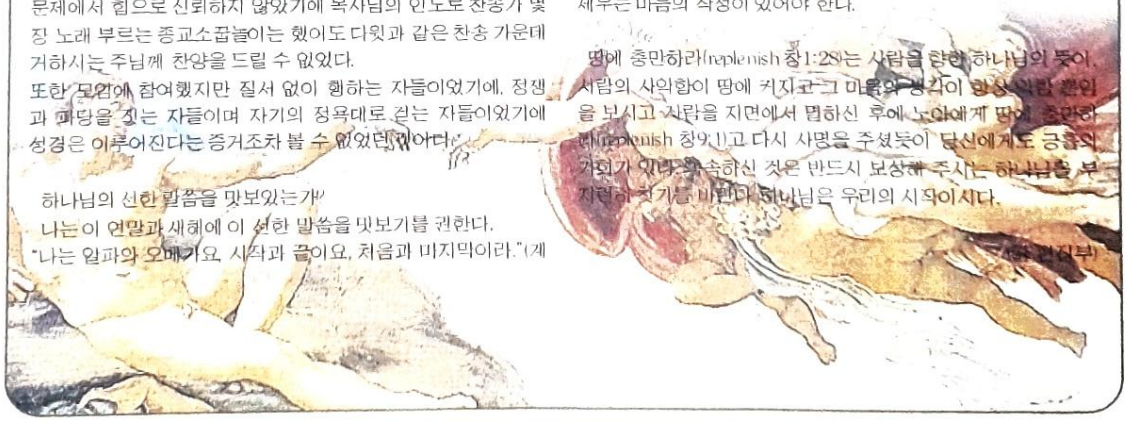
어떤 것들에 대하여 후회하며 심지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고 바란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새해가 되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말이 되었기에 망년일 수는 없다. 다시 태어나게(born again)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자만이 부활의 권능이 있어 새 것의 삶이 있고 만약 새해로 인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해 포로 신세가 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으로의 조명 속에서 자기(민족)를 성찰함으로 뜻을 세우는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에 의해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대로 따라, 재로남(regeneration)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renewing) 하심으로 하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3:4-7)

땅에 충만하라(replenish 창1:28)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신 후에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replenish 창9:1)고 다시 사명을 주셨듯이 당신에게도 긍휼의 거죄가 있다 할지라도 속하신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다.

(춘천 갈릴리교회 부)



만약 불 가운데 빠졌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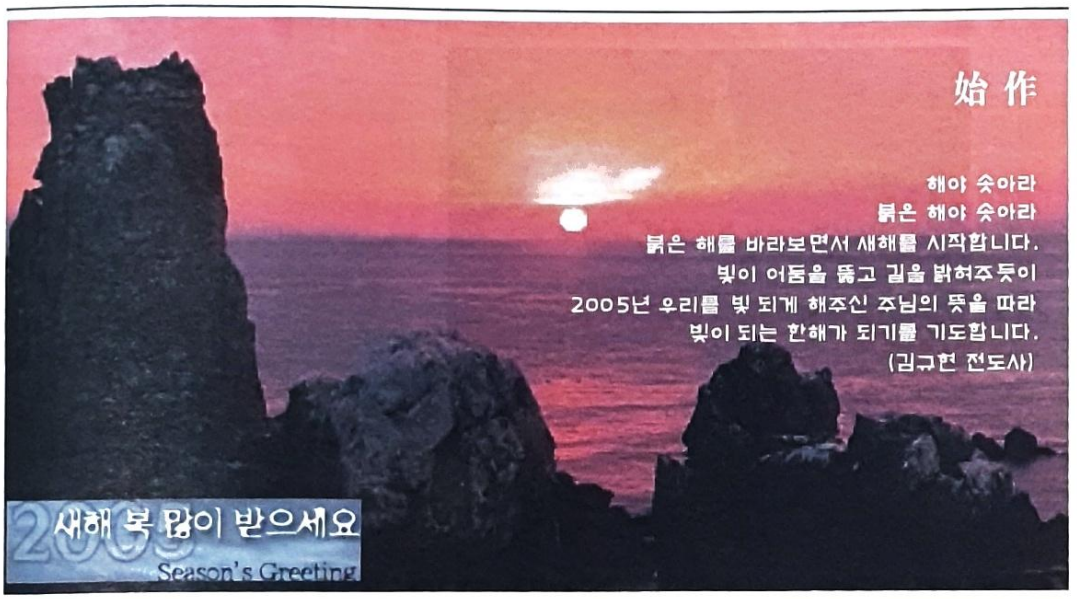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자기는 술과 담배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술, 담배를 하는 친구에게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먹던 술과 담배를 어떻게 갑자기 끊을 수 있겠는가? 차츰차츰 조금씩 줄여감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술과 담배를 끈을 것을 권하던 친구는 이에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만일 자네가 불 가운데 빠졌다면 차차 한 길음씩 나올 것인가?"

천일기획 since 1978
대표 전 친 일 안수집사
실사, 나염, 인쇄물, 판촉물
족자, 썬팅, 기타상담
교회현수막 전문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요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Tel. 255-5722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Fax. 256-5722 * 기술담당 : 박승기 디자이너 (구인)

축신년
에수사람운동 대표간사 길선희 244-5400
춘천 CCC 대표 정 경 호 목사 254-5776
에수전도단 대표간사 심일한 252-1128
IVF 대표간사 유승태 252-5200
JDM 대표간사 구영록 252-3192
어린이전도협회 대표간사 전영진 253-1444

/ 포 / 토 / 에 / 세 / 이 /



책으로 보는 세상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글. 춘천평안교회 고재만 목사
김양재 지음, 홍성사



세례를 맞이할 때마다, 옵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무엇인가 다짐을 하고 기도제목을 세워본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생활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보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늘 마음만 앞서가는 우리일 때가 많다.

여기에 소개할 책 -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말씀 묵상의 삶을 간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특징은 큐티를 권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이다. 지금은 집사님에서 큐티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큐티의 삶을 살게 된 저자의 간증이다. 형통함에서 오는 자랑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얻은 생명이다. 큐티라는 신앙적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 받고 새 힘을 얻어 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픈 소망이 생기며, 늘 실패하기만 하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며 격려해 주기도 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내 인생의 큐티에서', 자신이 큐티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한다. 저자인 김양재는 이북이 고향인 부모님 밑에서 막내딸로 자라 서울대 음대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다. 고된 시집살이 5년째 되던 해, 가출해서 기도원으로 간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큐티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힘력을 넘어 넣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가는 과정을 증거해 준다. 그 과정에서 삶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한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면서 큐티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고난도 복이구나 하는 생각과 그 고난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는지 큐티의 생명력을 볼 수 있다.

2부는 큐티의 실제편이다. 그야말로 같은 눈높이로 큐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큐티, 제대로 하기, 쉼이 먹기, 내가 주인공 되기, 작심삼일 극복하기, 삶으로 살기, 말씀을 내 기도제목 삼기 등이다.

3부는 큐티의 적용 사례로 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큐티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에스겐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느껴진다. 나도 큐티를 그 수준으로 하고 싶다는 사모함이 생기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말씀 묵상은 우리의 의무나 십자가의 수준이 아니다.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고 싶어 한다.

옵 한해가 그런 감격적인 한 해가 되도록 복된 출발을 하기 바란다.

구인 · 구직광고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신뢰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성시화 운동본부
신문배포를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033) 256-1260
010-3118-9355

행 사 안 내

▣ 월드비전 ▣
"동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지역 긴급구호"
우리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월드비전은 인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긴급구호 후원계좌
: 농협 204-01-078120
문의전화 : 033) 254-7244
※ 월드비전은 세계최대의 기독교 국제구호단체입니다. ※



'2005 홀리 기아체험 40시간'
일시: 1월 27일(목) - 29일(토)
장소: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군 오포읍)
대상: 전국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문의: 02)783-5161(내선642)

시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한국 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1-7211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 춘천 제1기 아버지학교 수료식



12월 4일(토)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지난 달 6일부터 5주 과정으로 150여명의 아버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아버지학교가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은 특별히 수료생들의 아내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에게 힘을 주고, 힘찬 격려와 기도로 새 가정이 되도록 해주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늦은 밤 11시 이후에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었다. 애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을 따라 세숫대야와 수건을 들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들은 아내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뜨겁게 서로를 안아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랑을 전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열릴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와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한다.

♡ 2004 제45차 교역자 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는 12월 8일(수) 오전 11시 남부제일감리교회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보고를 받고 증경회장과 교단 대표가 모여 임원을 개선하였다. 이날 구성된 임원은 회장에 김유식목사, 부회장에는 최현묵목사와 한균목사, 그리고 총무에는 송문식목사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신임 회장 김유식목사가 전 회장 길동희목사에게 1년간의 수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CBS창사 50주년 강원선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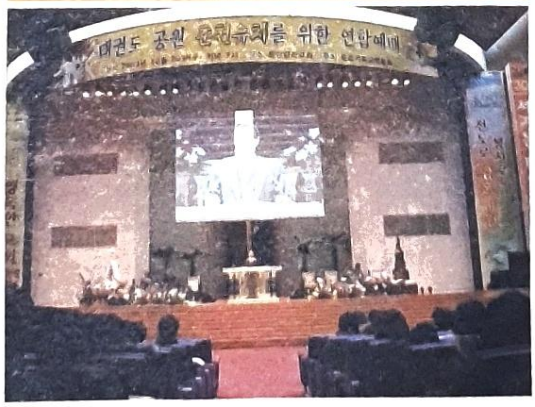
CBS춘천방송(본부장 김진규)이 주최한 CBS창사 50주년을 기념하는 강원선교대회가 지난 8일 저녁 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제이락의 공연과 대중가수였던 윤항기목사의 찬양으로, 제2부는 김진규본부장의 기념사, 이정식CBS사장의 인사말, 김진선 도지사와 한승수 전 부총리 등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제3부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진행을 맡은 기념집회에서는 박상호목사의 기도, 임운식장로의 성경봉독, CBS춘천방송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찬양, 지구촌교회 이등원목사의 설교, 김광국 · 유동선 · 황영찬목사의 특별기도, CBS춘천방송 운영후원회장 김주환목사의 인사 및 광고의 시간을 가졌고, 김창수목사의 축도로 다채로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성탄 츄리 점등식



지난 12월 14일(화) 오후5시30분 춘천명동 중앙로터리 중소기업은행 앞에서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제작한 대형 성탄츄리가 춘천을 환하게 밝혔다.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박상호목사가 사회를, 이학규장로(성탄츄리준비위원)의 기도,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츄리"라는 제목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허천 국회의원과 김진국 춘천부시장의 축사, 김창수 목사의 축도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연합기도회



12월 29일(수) 저녁 7시 중앙감리교회에서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태권도공원 춘천유치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박상호목사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장로연합회장 임운식장로의 기도, 원드비전지부장 이병선집사의 성경봉독, 순복음춘천교회 이경수집사의 색스폰연주로 특별찬양을, '참 나가는 한국인'이란 제목으로 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설교를, 원종국, 김현곤, 김성로목사가 태권도공원 유치와 춘천복음화, 성시화를 위해,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유동수 춘천시장, 허천 국회의원, 한종호 시의회의장의 환영사 및 축사가 있었으며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제이락 음반발표



춘천연합찬양선교단체인 제이락은 제1집 '회복' 음반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13일(월) 저녁 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음반발매 감사찬양예배를 드렸다. 제이락 고문인 박상호목사가 축사를,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목사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음반에 수록된 13곡을 선보였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CCM가수 포인트와 강찬이 출연하여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늘기쁜지역 아동센터 개소식



늘기쁜감리교회에서는 12월 18일(토) 오후 2시 늘기쁜지역아동센터가 개설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관 감리사(광염교회)의 격려사와 최돈식 춘천시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본센터의 어린이들이 축가를 불렀다. 본센터장 이심웅목사는 말한다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아동과 청소년사역을 위한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온힘을 다해 이 지역을 섬겨서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소중한 교회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늘기쁜지역아동센터는 도서관을 열고,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체험센터, 결식아동급식 등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 교경협의회 총회 및 위문품 전달



교경협의회에서는 12월 20일(월) 오전 11시 춘천경찰서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날 구성된 신임원으로는 회장에 최현묵목사, 부회장에는 소영춘목사와 이춘원목사, 총무에는 김혜영목사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난 후에는 전 · 의경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2004올리클럽 총회



12월 29일(수) 낮12시 예광교회에서 홀리클럽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가졌다. 홀리클럽 회장조은제목사가 일본선교를 위해 사임을 하고, 홀리클럽 임시준비위원을 선출하였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목사가 선출되었고, 본총회가 열리기 진까지 홀리클럽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聖地로의 특별한 초대
♥ 성지 순례 ♥ 여권 비자
♥ 단기 선교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사 설



"개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말자"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어느 여름 복날 친구들이 몰려 왔다. 미리 보신탕을 대접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터라, 집 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 년간 길러온 누렁이를 끌고 친구들과 함께 골짜기 개천으로 갔다. 주인은 친구들과 함께 누렁이의 목을 올가미로 메어 달았고, 잠시 후 누렁이는 즉 늘어졌다. 누렁이의 올가미를 풀고 토치램프로 털을 끄슬러내기 시작하였다. 누렁이의 털이 거의 다 타서 없어질 즈음 목이 메어달려 순간적으로 기절했었던 누렁이의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린 누렁이가 사태를 파악한 것은 순간적이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누렁이는 온힘을 다해 벌떡 일어나 도망을 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누렁이를 잡을 여유가 없었고 복날 첨엽은 엉망이 되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사철탕 집으로 인도했다. 그 후 사흘쯤 지나서 온몸에 회상을 입은 누렁이가 집에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주인이지만 주인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다. 주인은 이 녀석 돌아왔네, 네 이놈! 사람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다시 누렁이의 목을 올가미로 묶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소했었던 멍멍탕 첨엽을 다시 시도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죽이려 했으나 도망쳤던 자가 다시 돌아 왔을 때 기어이 죽이고 마는 잔인한 삶을 살고 있지나 아니한가? 누렁이는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으나 주인이기에 다시 찾아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었고, 주인이 하는 대로 올가미가 목에 쓰워지도록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다시 멍멍탕 재료로 사용하고 말았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석연치가 않다. 어쩐지 누렁이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유언의 말을 남기고 죽어 갔을 것 같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상대를 죽이려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간혹 만난다. 비록 육체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손해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일을 훼방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

성경은 마18:21-22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다. 혹 심심한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관계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성도의 자세라 하겠다. 앙갚음 같은 것은 하지 말자. 분을 품어도 성경대로 해지기 전에 풀자. 그렇게 해서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자.

2004년을 지나고 2005년을 맞이한다. 2005년은 용서와 용납과 새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개보다 나은 인간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알려드려요

◆예수사람운동
1) '3·3 영성훈련'
일시: 1월 3일(월) ~21일(금) 3주간 오후 2시~5시
대상: 시험마친 중3, 고3 각각 선착순40명
회비: 5만원(교재비 및 간식)
문의: 244-5400/011-9901-829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중국단기선교'
일시: 1월 3일(월) ~16일(주일)
2) '신입생 사역'
일시: 1월 한 달간
장소: CCC회관
3) '크리스천 기숙사회관 입주생 모집'
일시: 1월 한 달간
문의: 254-5776 / 011-216-3621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6시30분부터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 011-9490-6612

◆JDM
1) '청소년 수련회'
일시: 2005년 1월 17일(월)~20일(목)
대상: 중·고등부 선착순300명 회비: 6만원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2) 'IMTI 제7기 선교사훈련생 모집'
일시: 2005년 1월 31일(월)~ 2월 25일(금)
※ 2. 7일~11일 휴강(설날)
장소: 국제선교훈련원(IMTI)
신청 및 문의: 033)243-6701~4 F)243-6705

◆IVF
1) 겨울 연차별 훈련안내
일시: 2005년 1월 3일~8일, 10일~15일
장소: 아시아선교원 및 기타
내용: 아볼로성경학교(대학 1년차), 섬김이훈련(대학 2년차), 말씀과 삶 훈련(BLC/대학3,4년차)
2) '미션 춘천'
일시: 2005년 1월 17일(월)~19일(수)
장소: 아시아선교원
문의: 252-5200/아시아선교원

◆어린이 전도협회
1) 2005년 3일 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
일시: 2005년 1월 3일(월)~7일(금)
장소: 중앙감리교회
원서마감: 선착순20명 회비: 10만원(숙박)
문의: 033-253-1443

◆베드로선교센타
1) 선교사를 위한 세계선교연구원 개강
일시: 2005년 1월 3일(월) ~2월 말까지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강의실
2) MP식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 019-9903-1148

◆GBT(성경번역선교회)
1) 'GBT춘천선교대회'
일시: 1월 9일(주일) 저녁 7시
장소: 에덴장로교회(온의동)
강사: 권성찬 선교사
문의: 011-367-6086

◆제이락
1) '제이락 금요찬양집회'
일시: 1월 7일(금) 저녁7시(매달 첫째주 금요일마다)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2) 05 겨울 청소년 basic camp
일시: 1월 10일(월) ~14일(금)
장소: 명지대 용인캠퍼스
주최: 풍치선교단
문의: 244-8566 / 018-210-8566, 011-9368-9856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85-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임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열린교회
에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성결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천일현수막
베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우리이웃클럽		엔투어
유림닭갈비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에	안 정 숙	엄 필 님
오 흥 수	이 용 규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광고



축 신년 新年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성감리교회**

오늘은 춘천을! 내일은 세계를!

담임목사 김 창 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10-11
☎(033) 256-5534 FAX254-453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동부교회**

복음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교회

담임목사 임 신 영

200-070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37
☎(033) 252-5959 / FAX 241-1999

기독교대한감리회 **순복음춘천교회**

표어 : 능력으로 전도하여 배가 부흥 이룩하자(막16:15)

담임목사 김 주 환

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교회)253-2741 (당회장실) 253-2742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중앙교회**

예배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훈련으로 자신을 온전케하고
교제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담임목사 권 오 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02
☎(033) 259-3000 / FAX 252-3084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석사교회**

담임목사 손 학 균

200-932 춘천시 석사동 산27-21
☎(033) 261-6823 / FAX 261-68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제일교회**

은혜의 복을 받는 교회

담임목사 박 상 호

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
☎(033) 241-4361-2 / FAX 241-436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은혜교회**

오직 성령으로 새 생명의 역사

담임목사 지 용 찬

한 영혼 양육!
한 영혼 구원!
불원하게 삼시다.
바 른 믿 음
바 른 관

춘천은혜교회에 오시면 미래가 보입니다

200-130 춘천시 근화동 748-10
☎(033)241-4315, 011-372-6200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위임목사 이 원 호

"희년의 감사 · 미래의 비전"
제자 삼는 교회(마28:19)

200-030 춘천시 요선동 114
☎(033)253-2004-5, 251-2006, 255-1808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

4대 비전
- 주님의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 2세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담임목사 유 동 선

춘천시 죽림동 86-7 ☎ 256-3535
www.cccshc.com 부설 : 춘천중앙노인대학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광성교회**

"섬기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교회"

담임목사 박 인 관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28-8
☎(033) 263-5007 / www.cols.or.kr

행복한

기도와 찬양, 전도와 헌신으로 충만한 교회

담임목사 박 문 수

daum cafe : hac365(행복이있는교회공동체)

200-17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64-2
☎(033) 262-5305 / 011-372-530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교회**

1. 선교하는 교회
2.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3.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교회
4.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교회
5. 참된 예물을 드리는 교회

담임목사 오 승 룡

2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14-14번지
☎033-257-6117-8 / 목회상담 : 257-611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나눔교회**

nanum community

우리는 춘천성시화와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

담임목사 피 종 호

200-18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98번지
☎251-9191 fax)252-0091 www.ccnanum.org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화감리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령공동체

담임목사 한 균

강원도 동면 장학리 791-9
☎033) 241-5621 / FAX 241-5622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새순교회**

- 성령 충만
- 섬김
- 재생산
- 선교와 바른 삶
- 성시화와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

담임목사 김 현 곤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50
☎033-264-0291 FAX 264-0297

기독교 한국성결교회 **거성교회**

표어 : 착한 양, 착한 목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담임목사 김 수 복

200-852 춘천시 동면 만천리 817-3 1동 4반
교회당 : 252-6700 / 목사관 : 252-6757
<부설 '월드 리더' 선교원 243-5392>

희망찬 을유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